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42차	일자	2021.10.11 18:30	장소	온라인
----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X	O	O	O	O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O	X	X	O	O	O	8/13

## <개회>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불참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약학대학	2학기 가을축제 종료
예술대학	불참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중간고사 간식사업 진행 예정, 입학대회 완료, 이주 중 선거 일정 확정 예정 및 총학생회와 별도 선거 진행 예정
자연과학대학	불참
통일공대	불참
동아리연합회	12일 전동대회 진행, 이주 중 간식행사 진행 예정

## 2 보고안건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사유조사 취합 및 속기록 작성 진행 중	문화위 가을 축제 행사별 당첨자 취합 중
교육자치, 전략정책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전(스터디 중앙대 파이터) 진행 중	인복위 21-2학기 의혈지킴이 규찰대 진행 중
연대사업 노동자 휴게 공간 전수 조사 진행 중	장인위 학생 대표자 대상 장애인권 교육 관련 준비 중
홍보소통 푸짐한 힐링캠프 당첨자 개별 안내 예정	졸준위 리더십인 학위복 관련 설문조사 진행 중. 추가 졸업앨범 촬영 관련 업체 조율 중

### 3 논의안건

#### 1. 협의체 명의 입장문 피드백

- 내용 피드백 및 의견수렴
- 피드백 확정
- 1학기 등록금환불 관련 논의

총: 일전에 올려드린 협의체 명의의 입장문 피드백인데 게시글로 피드백을 받았으나 다수의 대표자분들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 피드백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우선 예술대학, 인문대학, 사과대 그리고 통일공대는 피드백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피드백을 남겨주시지 않은 대표자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내일 중으로 기획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경.정: 경경대 피드백 없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 피드백 없다.

약학.정: 약학대 피드백 없다.

사범.부: 사범대도 피드백 없다.

총: 네 그러면 특별 장학금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처에 전달해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하나 질의가 있는데 혹시 입장문만 공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열람했던 세부 회계 내역도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본다.

총: 우선 입장문만 발표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들은 이미 결산서로 올라갔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네 피드백은 이렇게 확정을 짓도록 하고 1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한 논의이다. 제가 이 입장문 작성을 위한 논의 자리에서 1학기 등록금 환불에 대한 기획처의 입장을 물었으나 1학기 등록금 환불은 이 사안이랑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다. 그래서 내일 기획처한테 피드백을 전달함과 동시에 1학기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교의 입장까지 모두 묻도록 하겠다. 괜찮으신지? 네 감사하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1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2번 성평등위원회 폐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2. 성평등위원회 폐지 후속조치 논의

총: 우선 기존의 성평등위원회가 담당했던 업무들은 이번 주 수요일 국,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배분을 할 예정이고 사실 모든 사업과 정책들을 전달받아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재 반드시 필요한 것들 위주로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혹시 성평등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질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성평등위원회가 하는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를 안 하고 오신건지?

총: 네. 이번 주 수요일에 국,위원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었다.

사과.부: 그럼 저희 의견을 먼저 들으시는 건지?

총: 네네. 일단 말씀해 주시면 국,위원장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네 알겠다.

총: 네 피드백 없으신지?

사과.정: 사회과학대학 의견 있는데 사실 사과대는 안건지를 보고 그때 저희 학운위에서 국으로의 조정이라는 수정안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성평위의 후속 조치가 단순히 성평위의 현재 업무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를 넘어서 성평위가 했던 사업들을 남은 임기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까지 논의를 하는 줄 알고 그 방향성으로 학생회장단이 논의를 해왔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총: 일단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더 여쭙보려고 했었다.

사과.정: 네 알겠다.

총: 네. 기존에 성평등위원회가 담당했던 그 업무들의 그런 업무 분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앞으로 이제 성평등위원회의 이제 후속 기관이라 할지 기관이라고 호칭해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성평등위원회가 했던 사업들과 정책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다. 우선 성평등위원회의 폐지가 가결이 됐고 국으로의 조정이라는 안도 상정이 되었으나 대표자들의 투표를 통해 부결이 됐다. 그래서 성평등위원회의 후속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이미 대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누가 담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올해는 일단 올해 성평등위원회가 진행을 하던 업무들은 올해 저희 국, 위원회에서 분담을 하되 내년도 총학생회가 새로 출범을 한다면 그건 또 내년도 총학생회가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한다.

동연.부: 동아리연합회도 총학생회장님과 같은 의견이다.

사과.정: 네. 논의에 앞서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총학생회장단께서 생각하시는 성평위가 했던 업무중에 꼭 이어서 해야 하는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총: 우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의 개정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화면에 공유해 드리는 파일을 보시면 지금 성평등위원회가 담당을 하던게 있다. 최종 접수에는 인권센터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담당을 해왔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또 다른 부서가 담당을 할 것인지 일단 이 업무 이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가다실 9가 접종 같은 경우에는 연대사업국에서 제휴를 넘겨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고 운동 챌린지 이런 간단한 사업들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장 시행이 돼야 하는 사업과 정책들 위주로 분담을 할 예정이었다. 성평등위원회가 내부 세미나 및 젠더 뉴스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현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뿌리 달력 발행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단 임기가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들 위주로 업무를 분담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평등위원회가 했던 업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학생회가 새로 출범을 해서 나중에 그 총학생회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무를 분담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약학.정: 약대 총학생회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사과.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의견 드리는데 물론 내년도 학생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해당 학생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성평위의 업무나 사업을 알아서 분담해서 하는 방향성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임기하는 동안에 이런 의결을 통해서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그럼에 따라 지금 가장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건 지금 현재 임기하고 있는 저희 중운위 대표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다음 임기 때 대표자들에게 그냥 일을 떠넘기겠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저희가 학운위에서 진행했을 때 해당 의결이 진행된 만큼 어쨌든 현 임기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해당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고 그 내용을 후대에 인수인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총: 네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된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요지가 첫 번째로 성평등위원회 폐지에 따른 국으

로의 조정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가 하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현재 성평등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업과 정책들 중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런 이제 임기가 별로 남지 않았고 행정력 때문에 이제 현재 시행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총학생회가 또 따로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다. 사과대에서 생각하시는 후속 조치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사과.부: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평위가 해오던 업무를 사실 분담해서 그러니까 분산해서 각 국, 위원회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해당 기구의 본 목적에 맞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일단 사과대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왔던 바로는 현재 인권복지위원회의 네 잠시만요 저희가 사실 간단하게 생각해온 바로는 인권복지위원회에서 인권의 범주로 성평등 기구의 역할과 사업을 담당하고 실무적으로 일이 너무 많을 경우 총학생회의 일상복지국과 복지 관련 업무를 분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사실 각 국, 위원회에서 현재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성평등위원회 업무가 각 국, 위원회로 분담이 된다면 사실상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나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개편 또는 분배되었으면 좋겠다.

총: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사과.부: 네

총: 네 그러면 기존에 성평등위원회가 담당했던 사업과 정책들 중에 지금 당장 시행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사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성평위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성평위의 위원회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학생회장단께서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정 위원장단 회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평위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한 차례 정리해 보시고 이거는 국, 위원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든다.

총: 우선 확운위 자료집을 보시면 다 나와 있다.

사과.정: 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확운위 자료집을 확인하고 다음 주까지 논의를 해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위원회의 최종 대표자 대표자이신 총학생회장단의 의사를 좀 확정하고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죠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총: 우선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될 때 사실 성평등위원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우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기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분담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차원에서 그는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국, 위원장 회의 전에 또 확운위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려고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의견이 있다면 제가 국, 위원장 회의 때 들고 가서 또 국, 위원장분들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일단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이 좀 공유가 안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제 말이 잘 들리시는지?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성평등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의견을 드리면 사실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일문과 k 교수 사건이 있었고 영문과 a 교수 사건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성평등위원회와 관련 대책위원회의 노력 관련 대책위원회의 노력이 상당 부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학생 자치 차원에서 인권 침해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이러한 현재 성평등위원회 운영하고 있었던 신고 창구나 이 사건 대응 관련 활동들은 현재 총학생회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이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후속 조치 같은 경우는 단운위의 의견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운위가 진행된 후에 한차례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사과.정: 사과대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평위가 했던 사업을 총학생회 내부에서 나눠서 모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따져보았을 때 성평위가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행정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단운위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도 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 중운위 회의 때 가져오도록 하겠다.

경경.장: 경경대도 단운위 의견을 좀 취합한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총: 네 그러면 단운위 의견 수합하고 차기 중운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번주 수요일 국, 위원장 회의에서는 저희 국, 위원장단들이 판단을 했을 때 필요한 사업과 정책들을 먼저 분담을 하도록 하겠다. 괜찮으신지? 왜냐하면 업무 분담을 할 때 실무 일은 국, 위원장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국, 위원장분들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주 수요일에는 저희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권 침해 및 성폭력 신고 창구는 반드시 공백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라고 100번 공감을 하고 이거는 좀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국, 위원장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다른 부서가 이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경.장: 경경대 질의 있는데 수요일날 국, 위원장 회의 관련하여 국, 위원장 회의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총: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 네 아직 단운위 의견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는 불가하다 라고 판단을 내린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3. 중앙감사위원회 후속조치 논의

- 학운위 내 논의결과 정리
- 관련 의견공유

총: 학운위 때 나온 얘기들은 다 대표자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차기 중감위원장을 선발해야 하는데 학운위가 끝난 후에 이제 선발을 하자고 의결이 진행된 만큼 차기 중감 위원장의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행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 혹시 언제부터 모집을 시작하면 될지?

인문.장: 근데 총학생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 선출된 중감위원장이 앞으로의 중감위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인지?

총: 중운위와 중감위와의 그런 논의 체계를 개설을 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논의된 결과를 전달을 해서 중감위원장이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개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다. 근데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논의가 진행이 된 만큼 그런 중운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인문.장: 네. 인문대학도 이게 단순히 그냥 중감위원장이 선출돼서 그분에게 개혁의 총안을 넘겨줬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 사실상 지금 중감위원장이 뽑힐까에 대한 인문대학은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뽑히고 안 뽑히고는 나중에 일이니까 좀 이런 명확한 개혁의 방향성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중감위원장이 뽑히시더라도 중운위와의 좀 어느 정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어쨌든 개혁안이 나오려면 어쨌든 현재 존재하는 중감위 회칙 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차기 연도 전학대회나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후에 중앙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이러한 방향성 자체가 가장 현재 중감위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린다.

총: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회칙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1학기 전학대회나 학운위에서 개정을 하려면 사실 내년도 1학기 정기 감사도 진행이 되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봐도 되는지?

인문.장: 네. 그래서 인문대학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문대학은 일단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감사위원장이 뽑히지도 않고 중앙감사위원회의 체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감사위원회가 1학기 감사를 진행했을 때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장기적인 개

혁안을 만들어 놓고 회칙이 수정된 이후에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단위별로 의견이 상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제 개인 의견으로 남겨두겠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경경.정: 경경대도 인문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나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임기 안에 정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인문.정: 네 근데 제가 경경대 회장님 의견에 조심스럽게 피드백을 드리면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제가 말한 방향성 자체가 너무 장기적인 플랜이기 때문에 저희 임기 내에 이 모든 것을 완수하기 어렵다 라는 지점을 갖고 있어서 네 해당 부분도 단위내에서 논의를 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총: 네 그러면 당장 차기 중감위원장 선발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사과.부: 이에 대해서 사회과학대학은 일단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에 따라서 최초 모집이 15일간 진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추가 모집이 만약에 미선출시 추가 모집으로 또 7일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희가 11월에 총학생회 선거도 고려했을 때 적어도 10월 15일 이전에는 중감위원장 뽑는 공고가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총: 저는 장기 플랜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단 중감위회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장 선발을 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좀 미루지 말고 당장 그냥 모집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게 제 의견이다. 뭐 당장 내일 시행을 네.

인문.정: 네근데 제 말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중감위원장을 안뽑자는 게 아니라 중감위원장을 뽑아 놓고 이런 장기적인 개혁 플랜을 세우자 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다.

총: 네 일단 당장 뽑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중감위원장 선발 공고를 개시하도록 하겠다. 괜찮으신지? 일단 중운위가 생각하는 중감위의 방향성들은 또 중감위원장이 선발되시고 상호 간에 또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감위원장이 선발되기 전까지는 그런 중감위의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단운위별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칙에 의거해서 15일간 3대 중감위원장 선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네. 없으신 걸로 하고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 4 기타안건

### 질의응답 및 추가안건 상정

총: 원래 오늘 국, 위원장 회의록 열람 의결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금 사실 여덟단위밖에 없어가지고 이 여덟 단위에서 의결을 진행하면 과연 효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긴 한다 사실. 더 많은 단위가 의결에 참여를 해서 좀 더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그런 단위수가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과대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과.정: 사실 과반수 이상의 단위가 참석하였으면 회의가 성사된 것이고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살짝 의문이었고 저희는 애초에 안건지에서 빠졌길래 다룰 의사가 없으신 줄 알았다.

총: 깜빡해서 안건지는 못 넣었으나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결을 해도 효력은 있는데 진짜 여덟 단위로 이렇게 의결을 해서 결정을 짓는게 그냥 좀 맞나, 더 많은 단위가 좀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이거 왜 의결해 이런 악의적인 마음으로 안건지에 배제한 것은 아니다. 깜빡해서 못했다. 예 그래서 기타안건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다. 사과대 회장님만 안건으로 상정을 해주신 사과대 회장님만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고 또 다르게 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의 못하지는 못할 것 같고 네 좋다. 다음 주에 네 다시 다음 중

운위 회의에서 논의해도 괜찮을 것 같다.

총: 감사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공지방에 확운위 사유조사 파일하고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하고 확대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표를 올려드렸는데 이 세 가지 파일에 대한 피드백은 좀 빠른 시간내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논의 안건 1번은 특별장학금 명칭 변경에 대해서 피드백을 전달함과 동시에 1학기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교 본부의 입장을 묻는다. 두 번째 성평등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는 단운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를 하되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국, 위원장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겠다. 그 업무 분담이 된 내용은 중운위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논의 안건 3번 중앙감사위원회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3대 중감위원장 선발 공고는 내일 게시하고 최초 모집 15일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 있는데

총: 네

인문.정: 해도 괜찮은지?

총: 네

인문.정: 혹시 저희가 그럼 중선관위 체제로 전환은 언제 되는건지?

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운위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려고 했었다.

인문.정: 다음 주 시험은 아니니까 해야겠다. 네 알겠다.

총: 학생 자치 휴일은 없다. 그래서 10월 18일 월요일에 성평등위원회 폐지 후속 조치와 중선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괜찮으신지? 다음 주 후에 진행해도 괜찮으신지?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고 64대 총학생회 선거 선거 일정은 제가 가안을 작성해서 중운위분들께 공유해 드려도 괜찮으신지? 작년 기준으로 작성을 하겠다. 크게 변화,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안을 작성을 한 후에 중운위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 본래 상정된 안건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사과.정: 사회과학대 의견 있는데 이번 확운위에서 선거 시행 세칙도 개정하지 않았는지? 선거 시행 세칙 개정안 그것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그것도 파일 올려드리겠다. 네 감사하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중운위 42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확운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다.

##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